

전주시 조직개편, '인간적 도시 조성'

현행 5개과·10개 팀 확대
사업소 9곳 → 8곳으로 축소

전주시가 민선6기 시정목표인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주시는 5국 2구 6과 2직속 8사업소 33동 367팀의 현행 조직에서 5개과와 10개 팀이 늘고 1개 사업소가 감소한 5국 2구 6과 2직속 8사업소 33동 377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생태·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4대 시정 핵심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핵심사업 가능 강화와 성장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문화유산과, 주거복지과, 에너지전환과, 자전거점정책과, 중소기업과, 세정과 등이 신설되는 것이 핵심이다.

과(課)의 경우, 세정과와 에너지전환과, 전문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 주거복지과, 자전거점정책과, 중소기업과 7개과가 신설되는 대신, 도시디자인담당관, 영화영상산업과 2개과와 한옥마을사업소 1개 사업소가 폐지됐다.

또한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성공적 추진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애인시설팀과 아이돌이문화팀, 물순환팀, 슬로시티팀, 동물복지팀, 생태도시조성팀, 항공대이전팀, 공동체사업팀, 책임은



인사개입 그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주시지부가 5일 전북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전주시의회의 지구 계획 마련과 실현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도시팀 등 16개팀이 신설되고, 6개팀이 통폐합 또는 폐지됐다.

우선, 시는 잠재적 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을 위한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역사복원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문화유산과를 신설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프로그램 간 통합적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구축과 에너지자립 문화도시로 나

아가기 위해 에너지전환과를 신설하고, 자전거점 활성화와 자전거점문화정착을 통한 사람중심의 생태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자전거점정책과도 설치했다.

특히 시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기존 도로하천과를 견고살은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민선 6기 후반기 시정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전주형 경제생태계 조성과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

소기업과를 신설한다.

또, 기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외에도 ICT융복합 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ICT융합팀을 영화영상산업과에서 탄소산업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세수증대를 위해 세정과를 신설하고, 한옥마을사업소는 폐지하는 대신 한옥마을지원과가 신설돼 사실상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주시 공무원 정원은 1996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과 신설로 인해 5급은 113명으로 4명 늘어나는 대신 6급 이하는 1845명으로 4명 줄어들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파 예방요령 안내 전단지 · 보온용 비닐커버 등 제작

전주시가 겨울철 동파 관리 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수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이 수도시설 동결로 인해 상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되는 동파 관리 상황실에 3개반 7명의 상황반을 편성,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동파방지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동파예방요령안 내 전단지 4만장, 보온용 비닐커버 3만매를 제작해 검침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저소득 세대 중 동파에 취약한 약 200세대를 선정해 계량기실 내부에 보온재와 동파방지 보온팩 등을 직접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현장행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개

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해 비상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12개사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동파계량기 교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호범 전주시 급수과장은 "이번 겨울은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량기실 내 현웃이나 에어캡(일명 백팩) 등을 채워 보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민약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수과 내 비상근무 상황실(063-281-6851~5)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히 교체·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상습 차량 속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발부키로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사이드미러의 접힘 여부를 보고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염모씨(33,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전주시 평화동 아울렛의 한 주차장에서 최모씨(45,여)의 고급 외제차량에서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0회에 걸쳐 사이드미러가 접힘 여부로 잠금상태를 파악해 10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문의 288-9700

성범죄로 수감생활 하다

출소 후 3달만에 또다시 성폭행 시도 20대 남성 징역형... 전자발찌 부착

전주지법, 5년간 정보공개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5일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달만에 또 다시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와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4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A씨(24,여)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델로 대려가던 도중 피해자가 도주를 하자 피해자의 현

금 7000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1일 출소한 뒤 3개월여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출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조폭 검거 총력전

가담자 41명 중 11명은 현재 도주중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둔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월드컵과 오대방과 조직원 검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41명중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 도주중인 나머지 11명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월드컵과 오대방과 조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5시30분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의 한 장례식장 주

차장에서 야구배트, 각목, 쇠파이프, 망치 등을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근처에 있던 승용차 3대를 파손시키는 재물손괴도 발생시켰다.

전북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초기에 인식하고 광역수사대 2개팀을 꾸려 사건조사와 검거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의 집단 난투극은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게하는 매우 위협적인 범죄"며 "아직 도주하고 있는 조직원들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설 맞이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18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상태 △냉동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